

제 40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값진 희생·숭고한 삶 자랑스럽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하는 ‘제40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12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지방종합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은 시민과 수상자, 가족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해로 40번째를 맞았다. 영광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상이군경 김강수씨

김강수(72·광주시 동구 학동)씨는 1962년 10월 5일 육군 맹호부대에 입대한 뒤 월남전에 참전했다.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던 그는 교전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목회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씨는

월남전서 부상…교회 목사로 독거노인 돌보기 앞장

1986년 장로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담양 일신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목회 활동을 기본이고,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등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했다. 김씨는 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여 동안 개인 비용을 들

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에 나서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된 뒤 자연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상이군경 부인 이기순씨

이기순(여·71·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1955년 6월 20일 육군 통신본부중대 복무하던 중 임진강전투지역에서 입부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친 나팔수씨의 아내다.

이씨는 1963년 3월 25일 2급 중상자로

전투 중 왼쪽다리 다친 남편 평생 뒷바라지

외롭게 살고 있는 남편 나팔수씨를 만났다.

몸이 부자연스러운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한 뒤 2남4녀를

두었다. 이씨는 특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국가유공자 아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자녀들도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는 등 가족들을 위해 온 몸을 바쳤다.



전몰군경 미망인 박순덕씨

박순덕(여·81·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1950년 남편 김재호씨와 결혼했다. 1년 후 군입대한 김씨는 1957년 제대를 앞두고 부산 구포에서 군 물품을 보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박씨는 슬퍼할

장사·농사일하며 두자녀·시어머니 보살펴

겨를도 없이 어린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터로 나섰다. 미역·멸치·사기 그릇 등 보따리 장사는 물론 농사일까지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선 병든 시어머니를 지극히 보살폈다.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남

편의 의로운 죽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박씨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경로당·독거노인 등 불우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전몰군경 유족 홍기범씨

홍기범(71·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광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아버지(故 홍형회)가 1948년 10월 18일 순전에서 순직한 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등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홍씨는 1963년 10월 29일 어머니마저

두 동생 돌보는 가장 역할…‘봉사하는 유족회’ 이끌어

돌아가시자 어린 두 동생의 뒷바라지를 했다.

홍씨는 2002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주시지부 남구지회 봉사위원으로 임명된 뒤 매월 1일 현충탑 참배 등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 중이다.

홍씨는 2006년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남구지회장을 맡아 하면서 저소득층 회원 위안 행사와 불우회원 대상 전격적 호국순례 행사, 6·25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봉사하는 유족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무공수훈자 송효석씨

1946년 육군 1사단 12연대 3대대에 입대한 송효석(85·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1950년 9월 13일 낙동강 칠곡군 다부동 전투에서 인민군 전차 5대 중 4대를 파괴한 뒤 1대를 노획했다.

송씨는 이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戰

낙동강 다부동 전투 인민군 전차 4대 파괴 공로

功)을 인정받아 화랑 무공훈장(1950년 12월 30일)을 받았으며, 육군 소위로 일계급 특진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 전공기록은 한국전쟁편찬위원회 호국용사 100선 집에 실렸으며, 호국의 별 3집 국방부 군인정신교육 자료와 반

공교육 지도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주지회 회원인 송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환경정화 활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주 장마 시작

남해안 많은 비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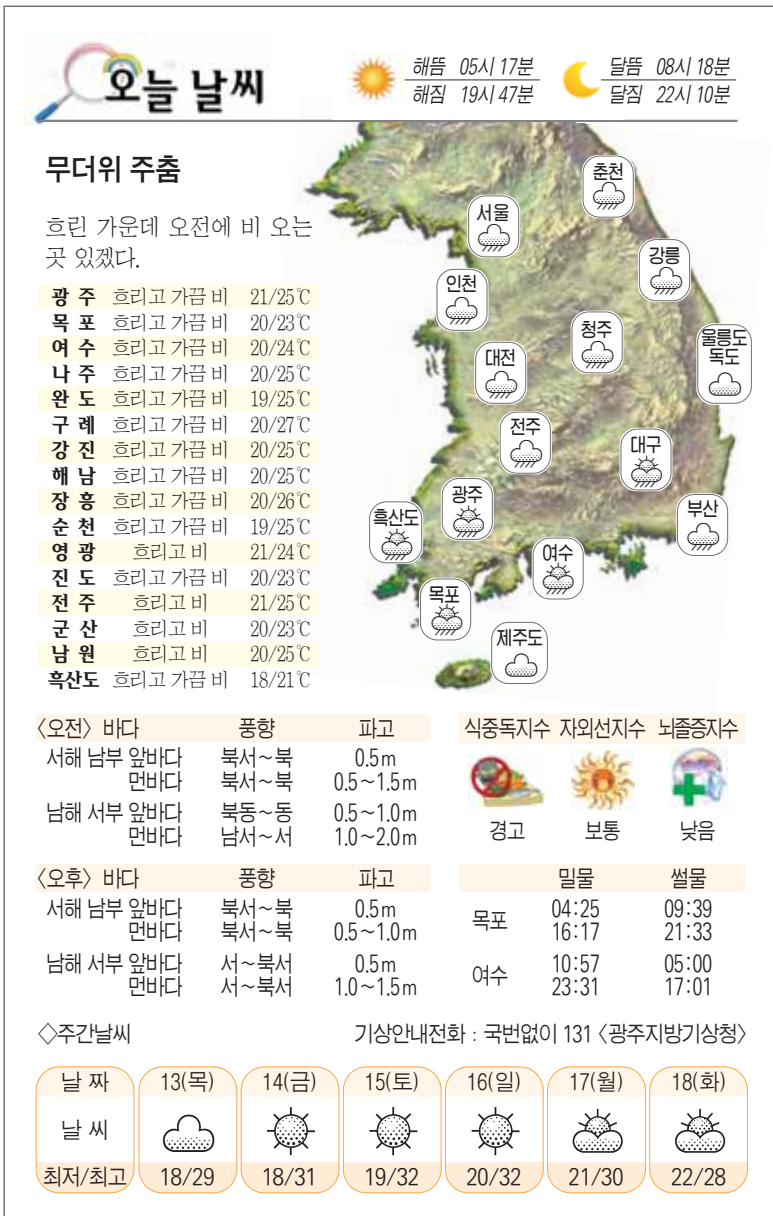
장마가 이르면 다음주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이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만 북단에서 일본 남쪽 해상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남해안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오는 18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며 광주·전남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년 장마 시기와 올해 일기예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장마 예상 시기는 6월 중순경으로, 하순에 들면서 중부 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하순 강수량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99~134mm)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장마전선이 소멸한 뒤에 또 국지성 호우는 한동안 계속되면서 약 한 달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원산지 속인 광주 맛집·모범음식점

19개 업소 적발

원산지와 친환경인증표시를 속인

음식점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원장 장병수)은 11일 광주지역 이른바 맛집과 모범음식점 96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비인증 채소를 유기농으로 둔갑시킨 음식점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해당 음식점들을 일간,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20일

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됐으며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기동단속반 7개 반이 투입됐다.

적발된 광주시 북구의 한 퓨전음식점 등 17곳은 수입산 쇠고기 등으로 조리한 메뉴를 국산산으로 속여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A씨의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조리한 메뉴를 국산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가 1억1940만원 상당량의 1만4800인분을 퓨전한정식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모 찜밥

전문점 등 2곳은 비인증 찜채소를 유기농채소로 속여서 판매하다 단속됐다. ‘광주맛집’으로 선정된 이 음식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비인증 찜채소를 유기농채소로 속여 시가 7800만원 상당량의 1만1200인분을 유기농찜밥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맛집 및 모범음식점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이용객들이 원산지와 친환경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차관 소환 통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

관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자택에

최근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출석 통보 시점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측에 앞서 지난 5월29일 1차 출석을, 이달 3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차 소환일

전날 밤 수사팀에 “맹장 수술로 20일간 입원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진단서와 함께 전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 대한 관련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초반부터 자신이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 등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연합뉴스

61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영어 캠프!!

24시간 영어로 생활

LEVEL 조별 수업

해외 문화체험

생활안전관리 시스템

수학 선행학습 실시

맛춤식 프로그램

광주일보 2013 영어캠프

상담문의 T) 062-224-8111 F) 062-226-8111

2013 Summer 필리핀 영어캠프

- 대상 : 초, 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16일 ~ 8월25일 (6주)
2013년 7월29일 ~ 8월25일 (4주)
- 비용 : 4주 233만원, 6주 350만원 (항공료 65만원예상 별도)
(15세미만 입국비용, 공항세 포함)
- 포함사항 : 수업료, 숙식비, 보험료, 비자연장비,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 포함

뉴질랜드 영어캠프

- 대상 : 초, 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23일 ~ 8월19일 (4주)
- 비용 : 4주 565만원 (항공료 포함)
- 포함사항 : 항공료, 현지보험료, 학교수업료, 홈스테이, TAX,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 포함